새연재

수리아의 검-1

글·고지연 삽화·김흥인

암흑속의 두 소년①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이 가까스로 소년의 눈꺼풀을 붙잡았다. 어차피 눈을 뜨면 펼쳐질 현실이다. 조금만 더 잠 속에 머물러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귀는 서서히 깨어나는 중이었다. 언젠가부터 어떤 소리가 귓속으로 밀려들어오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 소리는 난다의 어머니가 키질을 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마을 뒷산을 가득 채우고 사라지던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소리일 리가 없다. 적어도 그 정도의 정신은 차리고 있다. 게다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소리들이 무엇인가에 부딪혀 흩어질 때마다 나는 시원한 냄새가 소년의 코를 자극했다. '아! 여긴 바다 근처야! 분명해.' 소년은 이제 바다의 소리와 냄새를 세상의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자, 좋아. 이제 귀도 코도 제 기능을 찾았으니, 다음엔!' 소년은 있는 힘껏 눈을 떴다.

그런데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다시 감았다 떠도 마찬가지, 주위는 여전히 칠흑 같이 어두웠다. 소년은 벌떡 몸을 일으켜 사방을 둘러보았다. 현기증이 났다. 소년은 있는 힘껏 허공에 대고 팔을 휘휘 저어보았지만 옷자락 소리 말고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암흑이었다.

"아얏!"

외마디 비명 소리가 그 어두운 공간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가락으로 눈을 더듬던 소년이 그만 자신의 눈을 찌르고 만 것이다.

"이봐.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이때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소년은 온 감각을 이용해 암흑 속을 더듬어 보려 애썼다.

"넌 눈을 뜬 게 맞아. 괜히 죄 없는 눈을 괴롭히지 말라구."

"거기 누구야? 지금 너 어디 있는 거지?"

이번엔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 오른쪽이로구나.' 소년은 그 낯선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왜 웃는 건데? 넌 누구야? 여긴 어디지?"

"하하하. 버릇없는 소년이로구만. 그런데 소년은 맞나? 소녀라면 실례데 말이야. 목소리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네. 어찌 되었든, 이봐. 상대한테 정체를 묻기 전에, 자신의 정체부터 밝히는 게 순서 아닌가? 구태의연하지만, 그래도 다들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 그 이유를 파고들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 사사건건 따지고 들 필요 있겠어? 힘을 아끼라고."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었다.

"무니야. 그리고 남자라고. 도대체 이 목소리 어디가 여자 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목소리로 소년, 소년 하지마. 기분 나쁘니까."

"뭐야! 이름이 무니라고? 하하하. 누군지 모르지만 꽤 대단한 이름을 지어줬군."

"왜 자꾸 웃는 거야? 도대체 넌 누구지? 한 번 더 물어보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 얼른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흠흠. 소년. 아니. 무니. 넌 네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름에 뜻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냥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정체나 밝혀. 이 늙은이야!"

"거 참. 너무 거칠구만?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씨야. 이봐. 난 그다지 늙지 않았다구. 아니, 그것보다 넌 늙은이한테 반말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냐? 하여간 어찌 되었든 좋아. 정체를 밝히지. 내 이름은 칼키야. 잠부에서 왔어."

"칼키? 어디선가 들어 본 적 있는데. 혹시 날 알아?"

"아니. 너 같은 꼬마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그래도 지옥은 아니지. 오늘이 그믐이라서 그렇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부셔서 도저히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안이 환했거든. 그렇게 환하고 번쩍번쩍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나 신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놓고 살 수 있는 것은 신뿐이니까. 여기가 인간계와 천상계 사이 어디쯤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 그러나 범위를 아주 많이 좁히자면, 여긴 감옥이야.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보다 더 나쁠 수 있어. 신들이 만든 감옥이라니! 끔찍 하지. 여기선 늙지도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갇혀있어야 하거든. 소멸 아니면 불멸이야."

감옥이라는 말에 무니의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럼 난다는 어떻게 된 거지?' 무니는 잠부에 도착하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무엇인가에 쫓겼던 것까지만 기억이 났다.

"그런데 이봐. 넌 어쩌다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인간이 신의 감옥에 들어오기란 엄청 힘든데. 경쟁률이 무척 세다구."

"나도 몰라. 그런데 말이야. 저기 혹시 내가 여기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사람 없어? 아니면 짐승이라도?"

"흠. 글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네가 거기 누워있었어. 그리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넌 꼬박 이틀 동안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잤지."

무니는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난다와 칸타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헤어진지 이틀이나 지났다니. 게다가 감옥에까지 갇힌 신세다. '그런데. 뭐! 감옥? 내가 왜?' 무니는 그제야 의문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틀 전,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 하늘을 나는 걸 보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이 '칸타카도 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던 순간이었던 거 같다. 어쩐지 그 무리들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난다가 "무니야, 도망쳐!"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달아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잠시 타 봐도 될까요?"라고 부탁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되었든 난다의 말에 무니는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정신없이 뛰어온 목적지가 감옥이라는 소린가. 그것도 신의 감옥? 이때 칼키라는 남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너 지금 뭐해? 어두우니 영 답답해서, 원."

그리고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더니, '탁.' 하면서 순식간에 주위가 환해졌다. 무니는 깜짝 놀라 눈을 감았다.

"역시 대화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해야 깊이가 생긴달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빛의 자극에 놀라 미처 대답할 정신이 없는 무니를 놀리는 말투였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무니는 한 쪽 눈부터 시작해 감았던 눈을 떴다. 이윽고 두 눈을 다 뜬 순간, 시야를 가득 채우며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건 한 소년의 얼굴이었다. 무니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고 소리 질렀다.

"너, 너 뭐야!"

"나? 늙은이. 늙은이, 칼키."

그 소년은 씩 웃으며 무니를 바라봤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하얀 치아,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는 장난기로 반짝거렸다. 마치 할 말을 잃은 듯 상대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던 무니는 이윽고 할 말을 찾았다는 듯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런데! 왜 불은 안 켜고 있었던 거야!!"

고지연 작가는 동양 신화와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 그녀는 독특한 상상력과 섬세한 문체를 통해 다수의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등장인물



무니
전생이 없는 소년.



난다
무니의 친구이자
모험의 동반자.



데비
기억을 잃은 소녀로
무니의 일행이 된다.



연금술사
금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연금술사.



나가세나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산 노인.



칼키
파괴자의 운명을
가진 소년.



테드모
루드라 신이 가장
총애하는 인간.



루드라
파괴와 재생의 신



크리슈나
유지와 보존의 신.



칸타카
무니와 같은 날
태어난 하얀 망아지.

'효사 활인천역집' 2011 완결 최종판 분개(分個) 판매 개시!

본 육임 임상활용 CD 프로그램 및 육임 각 임상용 활용서는 육임의 정수(精粹)를 집대, 또는 장착시켜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대로 달성하여, 이 시대 전무후무한 **친견 · 임상활용 명품(名品)이 되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고가(高價)이므로 이를 분개(分個)시켜 요긴한 것만을 골라 쓰시게 하고, 또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리 알아 먼저 말할 수 있고'** 한글로 되어 쉽고 간편합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500만원

이하 분개된 종목 및 가격, 또는 육임활용서 내역입니다.

■ 효사육임산책 2011 개정판 (※)	CD 프로그램	150만원(활용서 200만원)
■ 효사육임래정비법 2011 개정 · 증보판 (※) (육임대계전서 합착됨)	CD 프로그램	100만원(활용서 20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 증보판	CD 프로그램	20만원(활용서 10만원)
■ 육임길흉성부상담지침록 (※)	CD 프로그램	20만원(활용서 10만원)
■ 태아분만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개정판	CD 프로그램	10만원(활용서 12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 개정판	CD 프로그램	30만원(활용서 25만원)
■ 효사숙 사주 (※)	CD 프로그램	30만원
■ 월영도	CD 프로그램	20만원
■ 매화역수	CD 프로그램	20만원
■ 작명(作名) 감정	CD 프로그램	30만원
■ 주역	CD 프로그램	20만원
■ 택일법	CD 프로그램	10만원
■ 당사주	CD 프로그램	10만원
■ 토정비결	CD 프로그램	10만원
■ 꿈 해몽집	CD 프로그램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CD 프로그램	20만원
■ 동의보감	CD 프로그램	10만원



이하 육임임상용 활용서 입니다.

■ 고귀명수(鼓龜命數 : 일생사 및 당면사) 육임운명판단법 신간 (新刊) (1월 15일까지 150만원 할인 가격 배송) (1권 · 6권 · 60권 / A3 · A4 · B4크기 중 선택)	350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 개정 증보판(좌정용 / 휴대용)	50만원 / 30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 개정판	20만원
■ 효사육임풍수 2011 개정 증보판 (※)	30만원
■ 오행제례의식집 2011 개정판	15만원
■ 효사육임강론 2011 제8판 최종본 上(육임종합학습서 2015쪽) (※) 下(육 임 임 상 용 1750쪽) (※)	55만원
■ 효사도정기(道程記)	12만원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감동적인 법회 / 각 목적사 기도문 / 각 목적 법문 인용구 수록 (※)	10만원

위(※) 표시의 육임활용서 및 CD프로그램은 더욱 귀중한 추천 명품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육임강의 「도술(방법실기)반」 수강신청 받습니다

www.taotemple.net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효사직통 070-7514-8680 / 사무실 02)738-8680 / FAX 02)738-8681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협 301-0071-8027-01 예금주 : 육임나라(주)